

Ⅲ. 교당 교화체제 개선 방안

황 대 원(정토회교당, 수위단회 전문위원)

박 인 해(중앙교구사무소, 수위단회 전문위원)

1. 이끄는 말	33
2. 교화 점제의 원인	34
1) 교역자의 자질 부족	34
2) 교역자의 사기 저하	35
3) 교당의 폐쇄성	35
4) 교역자간의 갈등	35
5) 교화의 비효율성	36
6) 다양한 교화 방법 부족	36
7) 교당 규모의 영세성	36
3. 교당교화 체제 개선 방안	37
1) 교당의 적정 규모화	37
2) 도시 근교 교당 설립	39

1. 이끄는 말

오랫동안 교화가 침체되어 오고 있다. 교역자의 한 사람으로써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어두운 까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대와 인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으나 우리 교회는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교도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외면된채 교당은 교도들의 훈련도량으로 보다는 점점 교무들의 생활관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당이 일 주일에 한 번 찾아와 한 시간여 동안 법회만 보는 곳에 그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당은 응답 교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히 쉴 수 있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을 수도 있으며 문화, 복지, 건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실지 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생활의 새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교도들을 위한 교도들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도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항상 가고 싶은 교당이 될 때 교회는 저절로 발전될 것이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저서 《진화론》에서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 남는다.” 고 하였다.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일원대도 회상의 5만년 대운에 대한 믿음이 결코 나태하고 안일한 교역 생활로 그릇 인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익혀 왔던 잘못된 관습과 기존의 의식들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아픔을 감수하고 교단의 개혁과 자기 변혁의 굳은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것부터,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2. 교화 침체의 원인

교화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도 시대에 맞게 그리고 대중성이 있게 교화체제를 개선하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화 침체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로 한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1) 교역자의 자질 부족

원불교 교도들을 보면 실지 생활 속에서 신앙심이 약하고 수행이 체질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교화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도들의 자질 부족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교역자의 자질 부족이 그 원인이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 신앙 수행의 깊은 체험이 부족하고 그것이 내면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화 전문인으로서도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이것은 교역자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총부와 교당과 기관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결여되어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역자의 사기 저하

현재 많은 교역자들이 가정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좌절감, 성취감 결여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직 몰입도를 감소시켜 교화 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즈음 교역자의 사기 저하가 교단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도층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3) 교당의 폐쇄성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교당이 일 주일에 두 세 번 정도의 법회와 몇 번의 재를 올리는 것 등을 교화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 교당 문을 열어 교당을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교화가 더욱 활발해 지리라 생각된다.

4) 교역자간의 갈등

현재 교무 부교무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써 교화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세대간의 상이한 가치관,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해야하는 부담감 그리고 갈등 발생시 이를 중재해 줄 사람의 부재에 기인한다.

5) 교화의 비효율성

교화 활동은 법회, 재, 순교, 교도관리, 훈련, 지역사회 교화 등 그 종류와 양이 대단히 다양하고 많으며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혼자서 다 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교당 규모가 적정 수준이 되어 이 일들을 몇몇의 교역자가 업무 분담을 한다면 전문성도 생기고 일의 집중력도 생겨서 교화 업무가 대단히 효율적이 되리라 여겨진다.

6) 다양한 교화 방법 부족

현대는 개성의 시대요 레저의 시대요 문화의 시대로 사람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무엇인가를 향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교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교당 교화의 상황은 어떠한가? 다양한 교도들의 욕구를 외면한채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중히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 교화도 이런 것을 배워서 교도의 입장에서 교도를 만족시키고 교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질높고 다양한 교화 방법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7) 교당 규모의 영세성

현재 교화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당 규모의 영세성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그외의 많은 문제들이 이 규모의 영세성 때문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규모가 영세하면 교역자가 힘이 들뿐만 아니라 사기도 저하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인해 심적 부담감이 크게된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심도있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어렵게 됨은 물론 교도들도 만족도가 낮고 부담감이 많아지게 된다.

교화연구소에서 원기 79년 10월에 발간한 교화발전계획(안)을 보면 교당 적정 규모에 대해 도시교당은 일반교도 교화단원수가 400~600명, 읍은 400명~500명,

농촌은 50~100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교당은 거의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며 거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교화가 힘만 들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 교당교화 체제 개선 방안

위에서 교화 침체의 원인들을 몇 가지 열거해 보았다. 그런데 이 침체의 요인들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교당교화 체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교당의 적정 규모화

교당교화 체제 개선 방안의 첫째는 교당 규모를 지금 보다 훨씬 크게하자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자생력이 없는 작은 교당을 많이 만들기 보다 좀 더 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각종 교육훈련 시설, 복지시설, 문화센터, 청소년 시설 등을 갖춘 규모 있는 제대로 된 교당 하나를 갖는 것이 인력낭비도 줄이고 교역자 사기도 올릴 수 있으며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교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적정규모의 교당이 갖는 장점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역자 공부 풍토 조성 -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일과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함께 정진하는 공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 ② 교역자 역량 개발 - 혼자서 적당히 하는 교화가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연구하며 평가하는 교화를 함으로써 교화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
- ③ 효율적인 교화 활동 - 교화부,총무부,훈련부,재무부 등으로 업무분담을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화 활동을 펼 수 있으며, 사람을 고용하여 잡일을 맡김으로써 순수 교화업무에만 전념할 수가 있다.

- ④ 적극적인 지역사회 교화 - 여럿이 살기 때문에 신변 위협이 없고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당을 지역 사회에 완전히 개방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⑤ 다양하고 질높은 교화 전개 - 기본 인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할 때 보다 훨씬 다양하고 질높은 교화를 할 수 있다.
- ⑥ 효과적인 인력관리 - 적은 수로 많은 교도를 교화할 수 있으며, 교화 부적응 교무도 소화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
- ⑦ 교역자 갈등 완화 - 두 세 명이 살 때 보다 인간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살므로 해서 교역자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도 있다.
- ⑧ 교역자 사기 진작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된다면 교역자들이 활기찬 공동체생활과 정진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교화에 대해 막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의욕을 갖게 되어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현재 모든 교당을 이런 적정 규모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중앙교구나 서울교구, 전북교구, 부산교구 등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익산지역만 하더라도 사실 네 군데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익산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면 한 교당에 7명씩만 근무를 해도 28명만 있어도 되며 현재 48명이 근무하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각 교당은 선교소로 운영하여 지역 별로 업무 분담을 하여 교화를 하면 될 것이다. (현재 익산지역 전체 교화 단원수는 6,000여명 법회 평균 출석수는 2,724명으로 만약 네 교당으로 나눈다면 한 교당에 교화단원수는 1,500여명, 법회 평균 출석수는 681명이 된다. 참고로 카톨릭은 현재 한 성당에서의 적정 신도수를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상이 되는 성당은 분당을 할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시행할 수가 없으면 우선은 지역별로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 출가교화단도 지역별로 편성하고 이 출가교화단이 한 팀이 되어 교당 연합으로 팀을 짜서 서로 함께 공부하고 교화 계획을 세우고 행사나 훈련을 함께 실

시한다면 현재 보다 훨씬 체계있고 효과있는 교화를 할 수 있으며 힘도 덜 들고 사기도 의욕도 더욱 오르게 되리라 여겨진다. 중앙교구에서는 내년에 이러한 체제로 교화를 해 나갈 것을 이번 교의회 때 결의하려고 하고있다.

2) 도시 근교 교당 설립

교당교화 체제 개선 두번째 방안은 도시 근교에 종합 시설을 갖춘 교당을 세우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규모있는 교당을 도시 한가운데에도 설립해야 하겠지만 한편은 도시 근교에 경관이 좋은 곳을 선택해 교도들을 위한 갖가지 시설을 갖추어 교도들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찾아 와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마이카 시대에 여가를 즐기려 하는 요즈음 사람들의 욕구에도 부합하는 좋은 교화의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요즈음 도시의 많은 교회들은 신도들의 복지와 건전한 레저를 위해 도시 근교에 교회들을 짓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전국 곳곳에 이런 교당을 설립해서 시대에 맞고 교도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는 다양하고 질높은 교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의식의 전환으로 기존의 교화만을 전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다양한 교화로 교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 교화가 다시 한 번 크게 불붙기를 기대해 본다.